내 영혼의 어두운 밤

성경말씀: 렘20:9

지난주: 예레미야의 고난(바스훌이 때리고 차꼬에 채움), '영혼의 어두운 밤', 교훈1: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감, 교훈 2: 뼈 속에 사무친 말씀(공의와 심판과 사랑의 말씀), 교훈 3: 고난 속에서도 주께 경배함, 교훈 4: 성도의 삶은 이중적이다(왜 사는가?),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요즘 세계명작 문학작품을 읽고 있다. '인간의 심연': 올리버 트위스트, 허클베리 핀, 동물 농장

저자의 말: "인문학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요2:23-25).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자세히 주고 있다.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성한 분량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는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당신을 향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교훈을 받으러 왔는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롬15:4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기드온

피상적으로 이들의 삶을 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올리셨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들의 특징: <u>주님으로 인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뼈저리게 겪은 사람들</u>

휴스턴으로 간 형제: 목사 권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쳤는가?

사랑침례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분들, 사업 실패, 인생 실패

그 밤이 하루인 사람도 있고 몇 십 년이나 된 사람도 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선포하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감옥살이, 종살이 10년 이상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하여 40년 동안 양떼와 함께 미디안 광야를 헤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광야 동굴로 떠돌며 눈물을 흘림(시55:1-7; 56:8-9; 57:1-2, 7)

예레미야: 오늘 하루만이 아니다. 그 날 20장을 기록했을 뿐이다.

<u>렘20:9절 다시 설명</u>

침례자 요한: 눅1:80, 광야의 사람(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림). 눅3:2

예수님의 증언(눅7:24-28)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밤(눅22:62)

사도 바울: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뒤 아라비아로 들어감(갈1:15-17).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가 밧모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

공통점: (1)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깊이 체험하였다.

(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소명을 감당하였다.

사도 바울의 표현(고후1:8-11, 고후11:23-29)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감, 중학교 시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음

22세에 유학, 32세에 귀국

성경 번역: 주로 홀로 하는 일,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나 연구하듯이 하면 되었다.

2000년 8월 초판 발행

한국에 온 이후로 가장 어려웠던 일: 교회를 찾는 것(원래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형제 교회, 지방 교회 영향을 받은 집 교회, 미국의 독립 교회 등)

성경이 완성될 무렵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의 신학교를 다니며 석사 학위를 땀(2001년 5월)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멀리 의정부로 2년 정도를 다님

2001년 8월 목사 안수를 받고 9월부터 교회 시작

약 1년 반 뒤에 교회 파산: 문제: (1) 목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시작함

(2) 목사와 사모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3) 교회의 유기체와 조직체를 구분하지 못함

2003년 8월부터 대단히 어려운 시절: 가정 파탄, 울화병, 교회 생활을 못함

이때부터 약 5년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 시작함

아내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너무 어려움이 많음. "더 이상 목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렘20:9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목사를 하다가 그만 두니 갈 교회도 없고 참으로 암담함.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짐.

"나는 왜 이럴까?" "죽어야겠다." 처음에는 비관과 비난으로 시간을 보냄. 성경 교정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목사를 깨닫게 됨.

2006년에는 캐나다의 에드몬턴에서 한겨울에 울면서 산을 헤맴.

시간이 지나도 교회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왜 교회들이 이럴까?), 목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구하는 자세로 목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함.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와 설교자',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나',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등 목사와 설교에 관한 책들을 읽고 읽고 또 읽었다.

그래서 얻은 결론: "<u>나는 목사를 할 수 없다</u>."

아내와의 갈등: 인하대 교수님, "예수님처럼 답답한 분이 있었겠는가? 그분의 마음을 가져라!"

이러는 가운데 갈등이 치유되고 두려운 가운데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듦(디모데 스쿨).

2008년 4월 송내역의 조그만 빌딩에서 시작, 이제 300명이 출석하며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까?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로 성장함.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꼭 필요하다.

구원 받기 전, 구원 받은 뒤(수유리), 목회 사역

예수님의 영혼의 어두운 밤

마4: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낮을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함.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심.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거의 매일이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왔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며 박해함

마26: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종교인들과 이방인들의 총독 앞에서 수치를 당함

죽기 전 날 밤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함. 제자들은 잠에 떨어졌으나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보시며 마26:38-39 말씀을 하심. 눅22:44 땀이 핏방울 같이 됨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내려침(마26:67).

베드로의 부인, 가시관을 쓰셔서 독으로 인해 얼굴이 부어올라 형체를 알 수 없게 됨

사53:3, 10-11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27:46).

영혼의 어둠을 통과하시면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의 죄들이 모두 용서됨.

<u>예수님도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다.</u>

성경의 위인들이 모두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다.

예레미야가 렘20:9에서 다시는 언급하지 아니하리라고 외쳤지만 그의 뼈 속에 갇힌 말씀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u>이 말씀의 불이 타오를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u>.

이 불은 어떻게 우리 속에 갇히는가? 눅24: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32절,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기도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뜨겁게 되는 일, 100독 1도, 이 교회의 부흥은 오직 말씀에서 온다. <u>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선포에 의해</u>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엎는 우리가 되자(데살로니가, 행17:6).